

21세기 교회 예배공간 디자인의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regarding the expression tendency of 21 century church service space designs

박기범* / Park, Gi-Bum

신홍경** / Shin, Hong-Kyung

Abstract

A church architecture which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place which is for worship God, relationship, education, evangelism, service and formative meaning that express as a specific form. It has been changed by age or changes of theology, also its structure and form has been changed so as to change of a ritual. the church architecture that has been authorized as a architecture which is a representation of the age does not represent the age and it has weaknesses for expression of unique identification church has. Also, because it is lacking thoughts about regional viewpoint, it loses the characteristic of regional "landmark" like the past. In addition, a place of worship has been changed materiality of space like auditorium or seats so as to change of consciousness of worship, and it is exposed problems of expression of identification. Therefore the church architecture of twenty first century needs to holy and be able to deliver their new standards and needs that fit original purpose of church for users.

키워드 : 예배당, 교회건축, 표현특성

Keywords : The worship space, Church architectur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교회건축은 절대자를 예배하고, 친교, 교육, 전도, 봉사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장소적 의미와 구체적 형태로 표현되는 조형적 의미를 가진다. 교회건축은 시대에 따라 혹은 신학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며 예배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예배공간의 구성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던 교회건축은 이제 더 이상 그 시대의 대표성을 띠지도 못하며 기독교가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 또한 지역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됨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배공간은 예배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강당 혹은 관람석과 같은 유형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교회건축은 신성하고, 교회본연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요구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있어 교회성장에 따른 예배공간의 실내 디자인적 표현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그 분석에 따라 현대 사회의 교회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시기별 구분을 지어 그 시대의 교회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그에 따른 실내공간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에 대하여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서 알아본다. 또한 근대 이후로는 몇몇 거장들의 작품들 중 예배당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곳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21세기 교회의 예배당 디자인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교회건축의 역사적 고찰

2.1. 초기교회의 건축의 고찰

초기 기독교 건축은 AD50년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양식으로 발전함 50~200년 기독교 박해시대 때 지하통로를 중심으로 기념비적 분위기로 발전해왔다. A.D313부터 8세기까지 약500년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로마네스크 건축이 시작되게 되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북방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게르만족의 영토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로마문화는 쇠퇴하게 되고 이에 기독교의 이상을 통해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교회건축에 집중하였다. 건축 활동은 고전과 중세의 과도기이나 중세 건축의 시작이며 로마건축이 발전되는 시기였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바실리카식 교회건축이 있으며 이 건축물을 발전시킴으로서 이후의 기독교 건축양식의 모태가 되었다.

2.2. 중세교회 건축의 고찰

(1) 비잔틴 건축의 특성은 4세기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돔을 사각형 또는 다각형 평면 위에 구축하는 펜덴티브(Pendentive) 형식을 그 특징으로 한다. 콘크리트나 벽돌구조법은 로마의 기술을 물려받아 구체구성(軀體構成)을 하였고, 그 표면을 대리석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썼다. 벽돌 쌓기는 색을 달리하여 횡선을 만드는 비잔틴식 쌓기법을 창안하였으며, 벽 내부는 대리석, 볼트와 돔은 황금색 바탕에 유리 모자이크로 성화(聖畵)를 그렸다. 돔의 구성은 큰 돔을 중심으로 작은 돔 또는 반원 돔이 서로 크기와 높이를 달리하여 회화적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비잔틴 건축의 아름다움이다.

(2) 로마네스크(Romanesque) 건축은 로마가 475년 이래 12세기 말까지 이르는 사이에 로마 예술을 기초로 하여 유럽 전 지역에 형성한 건축이다. 건축의 특색으로서 평면의 형식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와 같으나, 아치의 발달과 교회세력의 확장으로 규모가 커지고, 변화가 풍부하였다.

(3) 12~16세기 초까지에 걸친 고딕(Gothic) 건축은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에서 발전하여 독자적인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양식의 특징은 첨두 아치와 플라잉버트레스(flying buttress)의 창안에 있다. 구조적으로는 피어·버팀기둥·아치·리브·볼트 등이 서로 얽혀 수직력과 수평력을 받아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데 있으며, 볼트의 합리적인 구축법이 고도로 발달하였다.¹⁾

2.3. 근대교회 건축의 고찰

(1)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유럽각지에 전파된 중세기 사조에 반항하는 신을 풍조하였다. 르네상스는 불어로서 문예 부흥이라 하여 오랫동안 쇠퇴된 것을 재생시킨다는 가지고 있으며 15세기 이탈리아 프로렌스 지방에서 부르넬레스키에 의하여 시작 되었다. 르네상스는 대항에서 법칙을 구하였으며 왕, 귀족, 교황을 위한 궁전과 교회건축이 주된 건물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클라식의장과 고딕의 구조적 지식을 기초로 변용 발전시킨 양식과 로마양식을 기초로 하여 돔, 오더 등 고전적요소를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구사한 새로운 양식을 형성함으로써 중세기에 비해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2) 바로크 건축은 17세기 중엽 르네상스 양식이 전환하여 나타난 일종의 양식으로 르네상스 말기에 이탈리아 로마를 근

원으로 발전되어 전 유럽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따뜻하고 자유로운 건축공간 속에 심오한 신비성을 갖는 바로크 양식의 참된 모습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양식시대 건축의 걸작이다.

(3) 신고전주의는 바로크, 로코코양식의 반동으로 좀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건축미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그 이상을 르네상스 건축의 새로운 부활에서 구하려고 하였다.

(4) 아르누보(Art Nouveau : 1890-1920)

신예술이란 뜻으로 벨기에 브르셀에서 일어나 유럽에 확산된 양식이다 이것은 자연을 모티브로한 곡선을 많이 사용하였다.

2.4. 현대교회 건축의 고찰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건축 사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탈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중 코드화된 건축으로 일반대중과 건축가 모두에게 의사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3. 예배당 공간의 시대적 표현특성

3.1. 교회 예배당의 시대적 역할

(1) 초기교회 예배당

그리스도 최초의 조형물은 지하분묘이다. 박해시 성회의 집회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채광은 등불을 사용, 환기는 광항(Luminaria)이 있다. 복도는 Vault구조, 그리스도 공인 이후 로마의 재판소였던 바실리카의 형식에 따라 건축된 교회당이다. 기독교의 이념에 따라 계속 발전되어 고딕양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²⁾

(2) 중세교회 예배당

비잔틴은 종래의 바실리카식 교회가 장축형 공간을 형성하였다면 집중형 평면의 교회는 구심적 공간을 형성 또한 대형 돔 하부의 공간을 중심으로 주위 소형 돔 하부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통합 돔 하부의 고창을 통해 내부공간에 채광을 표현 내부공간은 정방형의 공간의 반복연속에 의한 울동감을 창출 수직성과 수평성, 상승감과 신비감이 내부공간의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³⁾

(3) 근대교회 예배당

종교와 절대왕권을 배경으로 공적 생활위주로 전개된 바로크 양식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의 사적 생활을 위주로 전개 섬세하고 우아하며 개인생활에 쾌락을 주는 개인위주의 소규모 공간 창조에 열중하였다. 실내를 곡선과 곡면을 이용하여 우아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주범은 장식에 의해 자유로운 수정 되었다. 모든 돌출부의 몰딩은 가늘고 약하며 조각은 넓고 평탄

1)인터넷:<http://iloveinterior.com> 실내내테리어전문홈페이지

2)인터넷:<http://blog.naver.com/hoowon1214?Redirect=Log&logNo=20011177557> 실내내테리어전문홈페이지

3)<http://blog.naver.com/zolla33ezolla33e/20001795697> 실내내테리어전문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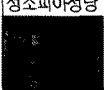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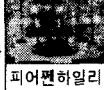


하다. 또한 아르누보 건축은 자연주의 경향과 유기적 형식을 사용, 곡선적 형태로서 철의 조형적 가능성과 예술의 종합 및 과거양식의 탈피모색, 철의 유연성으로 식물문양의 화려한 장식적 곡선미 창출하였다.⁴⁾

(4) 현대교회 예배당

보다 풍부한 상징성의 탐구에 의해 대중적 코드와 지역적 코드에의 관심, 역사적 기억, 도시의 컨텍스트, 장식, 형상성, 은유, 참여성, 공적인 영역, 다원주의, 절충주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⁵⁾

3.2. 교회 예배당 실내공간의 시대적 표현

<표 1> 교회 예배당의 시대적 표현 특성

시 대	양식	역할과 표현특징	실내공간
고전교회	카타콤 지하분묘	→ 제단, 석관/부속 시설물(제례 의식용, 장례 행사용 건물)이 따라 나오게 됨 → 기념비적 건축으로 발전	
중세교회	비잔틴	모자이크(얇은대리석판 색유리이용)	
	로마네스크	권위: ①규모(기념비), ②종교적 상징성(수직성), ③실내(밝은 빛=신의 존재) - 종교 건축에서 빛은 중요한 요소, 실내 <빛>에 의해 종교심이 많아지고 적어짐.	
	고딕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상(성경 스토리) → 아이콘의 기능 수직성의 관점이 아닌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장식을 많이 추구(전통 및 국민성과 관련)	
르네상스	르네상스	실내 장식에는 시선의 높이를 높여서 올려다 보는 친정화가 많이 표현됨. 터널형의 천정에 회화와 조각을 결합시킨 장식이 첨부되고, 천정이 뚫린 듯한 성당 내부에는 천국이 직접 연결된 것 같은 효과를 시도하였음. 올려다 보는 원근법에 의한 천정화는 궁정 건축에서도 장식으로 선호됨. 궁정의 벽면은 브로케이드나 벨벳 등으로 장식, 벽판은 상아, 대리석, 모조대리석 등을 사용. 문이나 의자 가구 등에는 진주, 은, 상감, 약어 가죽 등의 화려하고 희귀한 소재들을 사용.	
		르네상스+ 바로크	건축적 현상으로 세속적(secular) 건축(=비종교 건물)이 나타남 Late 르네상스 경향에서는 장식화, 기교화가 보임
근대교회	바로크	공간과 물체는 표리일체의 관계	
	신고전주의	18세기 → 자연신교(deism) 성경, 의식, 행사 불필요=중요한 것은 믿음 → 18세기 교회: 간결, 검소, 밝은 실내, 거대한 사용	
	아르누보	자연주의 경향과 유기적 형식을 사용, 곡선적 형태로서 철의 조형적 가능성과 예술의 종합 및 과거양식의 탈피모색, 철의 유연성으로 식물문양의 화려한 장식적 곡선미 창출	
현대교회	포스트 모더니즘	풍부한 상징성의 탐구에 의해 대중적 코드와 지역적 코드에의 관심, 역사적 기억, 도시의 컨텍스트, 장식, 형상성, 은유, 참여성, 공적인 영역, 다원주의, 절충주의 개념을 적극 활용	

4. 현대교회 예배당의 역할과 기능

(1) Sogn Benedetg(피터쭌터)

피터쭌터에게 첫 번째 국제적인 주목을 가져다준 작품은 1989년 스위스의 한 시골의 산골짜기에 세워진 Sogn Benedetg 라는 작은 채플 단순한 수직 타원형의 매스는 언덕 쪽과 언덕 반대쪽의 노출면의 재료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에 의한 흔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는 단순한 재목에 의해 구조화 되어 상부의 채광층을 통해 빛을 공간안으로 유입하고 있다. 예배당의 원통형의 형태는 자신이 위 facade interior view 처한 동부스위스의 농토의 사일로(곡식등을 저장하는 탑모양의 건축물)를 꼭 닮았다.

이 작은 채플은 쭌터의 가장 중요한 건축 성격의 두가지를 논증하고 있는데, 첫째는 “건축(건설)은 많은 부분들 중에서 전체의 의미심장한 제작의 예술이다. 나는 물질을 결합하는 방법 -인간기술의 기저에 놓여있는-의 지식에 감명을 받는다. 나는 이러한 지식의 가치로 건물디자인을 시도한다”라고 말하였듯이 건축에 대한 믿음이다. 두 번째 논증은 “건물은 디자인할 예정 일때 나는 명확한 대지와 장소에 집중한다. 나는 그것의 정확한 깊이와 형태, 역사와 심미적인 특질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하였듯이 장소성에 대한 중요성이다.

(2) 빛의 교회(안도 다다오)

빛의교회는 3가지 표현특징이 있다. 첫째는 Geometry 건축 자체의 완벽한 기하학 구조이며 둘째는 Nature 건물에 자연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자연과 건축물의 Harmony 하게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자연이란 인위적인 자연 즉 물을 이용한 연못과 나무를 이용한 마당 그리고 유리를 이용한 빛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Substance 진솔한 콘크리트 유리에대한 탐구다.

(3) 물의 교회(안도 다다오)





이 교회는 물이라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살려 작은 규모의 교회를 자연 한 가운데로 옮겼다. 이는 물을 이용하여 외부와 예배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자연도입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배당의 유리벽을 통하여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연못으로부터 자연을 직접 만나게 된다. 안도는 물위의 교회를 통해 자연을 안으로 들여오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자연 앞에 먼저 내놓아야 한다. 물위의 교회 앞에 있는 거대한 호수는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다. 건물의 터진 앞 부분은 빛을 반사시키는 물의 거대한 수평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4)현대교회건축에 나타나는 도상학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2006
5)이종희,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창의 형태에 따른 빛의 유입 방식 및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4) Nachtwallfahrtskapelle Locherben

장소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연속적 건축들은 비록 다른 시간속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물질이나 형태의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건축이 속해 있는 장소를 자연적이면서 감성적인 공간 재료의 비 물질성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표 2> 현대교회 예배당의 표현특성

교회	표현특성	예배당
Saint Benedict Chaple (Sumvitg, Switzerland), 1985-1988 (피터 Zumthor)	노출면의 재료가 다르게 구성, 시간에 의한 흔적을 강조, 재목에 의해 구조화, 채광층을 통해 빛을 공간 안으로 유입 건축적 두가지를 논증 첫째는 "건축(건설)은 많은 부분들 중에서 전체의 의미심장한 제작의 예술이다. 나는 물질을 결합하는 방법-인간기술의 기저에 놓여있는-의 지식에 감명을 받는다.나는 이러한 지식의 가치로 건축디자인을 시도한다"라고 말하였듯이 건축에 대한 믿음이다. 두 번째 논증은 "건물은 디자인할 예정일때 나는 명확한 대지와 장소에 집중한다. 나는 그것의 정확한 깊이와 형태, 역사와 심미적인 특징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하였듯이 장소성에 대한 중요성이다.	
빛의교회 (안도 다다오)	Geometry 건축자체의 완벽한 기하학 구조 Nature 건물에 자연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자연과 건축물의 Harmony 하게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자연이란 인위적인 자연 즉 물을 이용한 연못과 나무를 이용한 마당 그리고 유리를 이용한 빛을 뜻한다. Substance 진술한 콘크리트 유리대안 탐구	
물의 교회 (안도 다다오)	물이라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실려 작은 규모의 교회를 자연 한가운데로 옮겼다. 예배당의 유리벽을 통하여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연못으로부터 자연을 직접 만나게 설계되어졌다.	
Nachtwallfahrtskapelle Locherben (헤르조그 & 드메론)	장소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연속적 건축들은 비록 다른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물질이나 형태의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건축이 속해 있는 장소를 존중해야만 그것 자체가 존재 할 수 있다. 자연적이면서 감성적인 공간 재료의 비물질성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교적이며 기념비적인 표현특성이 중세교회 때 교회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공간으로 발전하였다. 근대교회에서는 규모면에서 기념비적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적인 요소를 통하여 종교심을 극대화 시켰다. 21세기 교회에서는 비 물질성구조를 시각화, 실제화 시켜 공간에서의 감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교회건축은 빛과 색을 통하여 신성함과 감성적 공간으로의 디자인 변화를 추구한다.

참고문헌

1. 이종희,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창의 형태에 따른 빛의 유입 방식 및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2. 성은석, 2000년 이후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3
3. 현대교회건축에 나타나는 도상학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2006
4. 정태용, 알바 알토의 교회건축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4호 통권57호, 2006
5. 양세은, 알바 알토와 안토니오 가우디의 교회건축 빛 디자인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1호 통권60호, 2007
6. 김영기, 지역사회를 고려한 복합 교회건축 계획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
7. 인터넷:http://iloveinterior.com 실내인테리어전문홈페이지
8. 인터넷:http://blog.naver.com/zolla33e/20001795697 실내인테리어전문홈페이지
9. 인터넷:http://blog.naver.com/hooon1214?Redirect=Log&logNo=20011177557 실내인테리어전문홈페이지

5. 결론

<표 3>은 시대적 변화에 있어 교회성장에 따른 예배공간의 실내 디자인적 표현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예배당의 표현경향

시 대	역할과 표현특징
초기교회	역사적, 종교적, 기념비적으로 표현
중세교회	수평, 수직성, 연속성, 물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축장은 착색유리로 장식, 내부의 트리포리움 벽면을 프레스코 기법의 성화로 장식하여 종교적 분위기 조성
근대교회	규모에서의 (기념비), 종교적, 상징성(수직성), 실내(밝은 빛=신의 존재) <빛>에 의해 종교심이 많아지고 적어짐 표현
21세기교회	비 물질성(장소와 대지, 공간과 형태, 개념과 지각) 심층미 -> 시각화 실제화 -> 공간에서의 -> 감성적방식의 표현

초기 교회에서 나타나는 예배당 표현특성으로 역사적이고 중